

# “지속가능 다자무역체제 구축 위해 국제사회 해법 모색하자”

## 최상목 부총리, G20 회의 참석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 선제적 대비  
방책으로 ‘재정건전성’ 수성 제안  
재무장관·국제기구 총재 면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앞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자고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부문 쟁점과 관련해 참가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지속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WB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기재부·뉴시스

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그는 한국이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불균형 완

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시장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전 재정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봤다. 아울러 글

로벌 금융안정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하자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기후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G20 국가들 간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도 면담했다. 지난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에는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을 만나, K2전자 수출 등 양국 방산 협력과 제2차 한-폴란드 경제대화 개최 등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만스키 장관은 방산 협력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우호가 깊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도 만났다.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한국의 세계은행 그룹 가입 70주년을 맞아, 올해 중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디지털 지식센터 설립, 한국 디지털 신탁기금 신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 확대에 대한 총재의 관심을 요청했다.

G20 회의장에서는 프랑수아 필립 상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3일에는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방

안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10주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또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EC)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미 간 관세협상에는 미군 주둔비용 문제가 이미 연계돼 있다는 진단이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의제가 아니라고 그간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측이 먼저 문제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경제 관계에 안보 관계도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앞으로도 줄곧 방위비 증액 문제가 관세 유예·인하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릴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금융연구소(IF) 행사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맺어지는 경제 관계들은 안보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각 안보 파트너들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호환되는 경제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또 “만약 미국이 안보 보장 및 개방된 시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도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더욱 확실한 약속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LL IN ONE CARE**  
**압 걱정, 말끔하게 색!**  
압 걱정이 질을수록 대비는 확실해야 하니까

**압진단시 보험료 환급**

**교보 통합암보험**  
하나라도 빈틈없는 통합암보험

<b>전조질환부터 후속치료까지 모든 여정을 빈틈없이</b> 검사비, 암진단비, 치료비 등 전과정 케어	<b>반복되는 암에는 반복되는 보장으로 든든하게</b> 원발암부터 전이암, 재발암, 전이암까지 보장	<b>성별 발병률이 높은 주요 암 보장까지 강력하게</b> 전립선암, 고환암, 난소암, 유방암 보장
---	--	--

**빈틈없는 통합암보험**  
**교보 통합암보험 (무배당)**

※특약 가입 시 검사비는 1년 미만에 50% 지급, 전조질환 최초 1회, 암진단비는 각 최초 1회 및 1년 미만 50% 지급, 치료/후속치료는 연 1회, 입원비는 최대 120일 한도(지급제한사항은 특약마다 상이) ※특약 가입 시 암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료 환급

\*교보생명명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유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503-98 상품키케팅팀(2025.3.26 ~ 2026.3.2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1952호 (2025-04-01 ~ 2026-03-31)

**KYOBO**  
교보생명

## 韓 권한대행, 추경 시정연설 “조속 심의·의결 간곡히 부탁”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 46년만  
“美 관세정책에 글로벌 경제 급변  
신속 협상으로 협의시간 확보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출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아들에게 달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관련 예산을 설명하며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해·재난대응 예산으로 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재정 투입, 특별자금 공급, GPU 확보, LLM(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AI 인재 양성, 반도체 거점 조성 등에 예산을 쓸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으로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을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의 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서예진 기자 syj@